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예배**  
**Ecumenical Worship Service For Peace and Unification**

2007년 8월 8일(수) 오후 3시  
그랜드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20<sup>th</sup> September 2006, Wed. 7:30pm  
At Myung Sung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사회자 장차남 목사  
Presider Rev. KIM Young Ta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Presider*

은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송 영 *Hymn***

다같이

여는 찬양

174 장 「성령의 은사를」

다같이

*Opening Hymn*

174 「Breathe on me, Breath of God」

*All Together*

**회개의 기도 *Call to Confession***

- i. 영상 *Image*
- ii. 침묵의 기도 *Meditation in silence*
- iii. 이성희 목사 *Rev. LEE Sung Hee*

**용서의 선언 *Assurance of Pardon***

사회자 *Presider*

**기도문 낭독 *Prayer and Hymn***

말은이 *Persons in charge*

**i 야 프리퐁 만소 목사 (가나장로교회 총회장)**

**Rt. Rev. Dr. Yaw Frimpong-Manso (Moderator of Presbyterian Church of Ghana)**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열고 성령강림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물질적인 가치 속에서 영적으로 피폐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Oh! Holy Spirit!

Come to this place at this moment.

Come to all of us who open our hearts and souls and await your coming  
and refresh our souls that are impoverished by material values.

**찬양**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Hymn**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y,  
come O Lord Jesus, Reconcile your people"

ii 김혜숙 목사 (한국교회협의회 가정생활위원회 총무)

Rev. KIM Hye Sook (General Secretary of Christian Home & Family Life Committee -  
NCCK)

오! 회개의 영, 성령이시여!

오셔서 하나님을 등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과 사회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Oh! Holy Spirit, the spirit of repentance!

Come and give courage and strength to all of us so that  
we who live among the generation that are turning away from God,  
this community, all the nations and the whole world can come back to you.

**찬양**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Hymn**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y,  
come O Lord Jesus, Reconcile your people"

iii 이정식 장로(기독교방송 사장)

Elder LEE Jung Sik (President of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오! 고치고 싸매시는 성령이시여!

오셔서 세상가치에 빠져 병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개인과 사회와, 특별히 교회를 고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회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Oh! Spirit that heals and binds up our wounds!

Come and heal the individuals, the community, and especially the church  
that live among this generation enticed and sickened by the worldly values.  
Consecrate us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e world.

**찬양**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Hymn**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y,  
come O Lord Jesus, Reconcile your people"

iv 더글라스 프롬 목사 (미국개혁교회)

Rev. Douglas Fromm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오셔서 세상에 만연한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새롭게 하시고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Oh! Spirit that renews all things!

Come and purify men's wickedness with God's justice and  
transform this world full of wars into God's land of peace.

**찬양**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Hymn**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y,

*come O Lord Jesus, Reconcile your people"*

v **최명배 목사 (미국장로교전국한인교회협의회 총회장)**

**Rev. CHOI Myung Bae (Moderator of NKPC)**

오! 성령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Oh! Holy Spirit!

Come to this place at this moment.

Come at this very hour.

We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ve promised to send us the Holy Spirit. **Amen.**

**찬 양 Praise 재한몽골학교 학생들 Students from the Mongolian School in Korea**

**평화의 인사 Passing the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악수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눔)

May the forgiving God, comforting Spirit, and the Christ of peace be with you.  
(Greeting with people shaking hands)

**말씀봉독 Scripture Reading**

**말은이 Persons in charge**

□ **구약의 말씀: 이사야 59:1-9**

**Old Testament: Isaiah 59:1-9**

**미구엘 엔젤 칸쿠 브롤라드 목사 (도미니카복음교회 )**

**Rev. Miguel Angel Cancu Brullard (Iglesia Evangelica Dominicana)**

1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흐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For your hands are stained with blood, your fingers with guilt. Your lips have spoken lies, and your tongue mutters wicked things. No one calls for justice; no one pleads his case with integrity. They rely on empty arguments and speak lies; they conceive trouble and give birth to evil. They hatch the eggs of vipers and spin a spider's web. Whoever eats their eggs will die, and when one is broken, an adder is hatched. Their cobwebs are useless for clothing; they cannot cover themselves with what they make. Their deeds are evil deeds, and acts of violence are in their hands. Their feet rush into sin; they are swift to shed innocent blood. Their thoughts are evil thoughts; ruin and destruction mark their ways.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there is no justice in their paths. They have turned them into crooked roads; no one who walks in them will know peace. So justice is far from us, and righteousness does not reach us. We look for light, but all is darkness; for brightness, but we walk in deep shadows.

□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11-22**

**New Testament: Ephesians 2:11-22**

**엘리제 파스쿠아 감독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

**Bishop Elizer Pascua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1 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and called "uncircumcised" by those who call themselves "the circumcision" (that done in the body by the hands of men)- 12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3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14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5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17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18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19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20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21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찬 양 Parise**

**명성교회 성가대 *Choir of Myung Sung Church***

**말씀의 선포 *Sermon***

**로더릭 휴위트 목사 (세계선교협의회 의장)**

*Rev. Dr. Roderick Hewitt (President of Council for World Mission)*

**다짐의 기도 *Prayer of Affirmation***

**인도자 1: 김호연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장)**

**Leader □: Rev. KIM Ho Yeon (President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오, 통찰의 성령이시여,**

1907 년에 이 민족이 역사적 질곡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개입이 필요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의 눈을 여시어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읽게 하시고 인간이 만드는 혼돈의 역사 속에 개입하소서. 그래서 이 혼돈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로 바로 세우소서.

**Oh, Spirit of judgment,**

When this nation was under historical repression in 1907, God sent the Holy Spirit to intervene in its history. Oh Holy Spirit, open the spiritual eyes of the Korean and the World Church to interpret the signs of the times and intervene in the manmade history of chaos. Transform this history of chaos into the God's history of order.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인도자 2: 조엘 루믈 목사 (체코형제복음교회 총회장)**

**Leader ii : Rev. Joel Ruml (Moderator of Evangelical Church of Czech Brethren)**

**오, 지혜의 성령이시여**

1907 년의 부흥은 개인의 영혼을 변화시키시어 윤리적 변화, 사회적 변혁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신학은 하나님의 그 넓은 세상을 향한 경륜을 다 담지 못하고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과 신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의 복음의 증언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서 이 세상의 역사적 구원에까지 온전히 미치게 하옵소서.

**Oh, Spirit of wisdom,**

The 1907 revival changed the individual souls and has led to ethical and social changes. However, the Church fails to incorporate God's will toward the vast world in its theology which is biased and distorted. Let the faith and theology of this generation discover the perfect will of God. Let our testimony of the gospel spread out from the salvation of our own souls toward the historical salvation of the world.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 인도자 3 : 송병기 목사 (미주한인장로회총회장)

Leader iii : Rev. Peter Byung Ki SONG

(Moderator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1907년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온 교회의 모범이 되고 온 교인이 성결하게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용기와 겸손이 없습니다. 오셔서 오늘 교회 지도자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자 정치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 지게 하시고 먼저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잘못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책고백이 교회를 성결케 하고 세상을 정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소서.

**Oh, Spirit of renewal,**

By confessing sins and repenting them, the leaders became examples of the whole church and God showed kindness by purifying his people. However, the leaders of today do not possess this courage and humility. Come and make all the leaders of the church, the society, and the politics humble themselves in the face of God and confess their sins of misguidance. Let our confessions serve as the momentum for the pur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world.

*다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 인도자 4 : 추아 후아펑 목사 (말레이시아 장로교회 총회장)

Leader iv : Rt. Rev. Chua Hua Peng (Moderator of Gereja Presbyterian Malaysia)

오, 화해의 성령이시여,

1907년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화해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민족은 분단되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영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시대의 가치를 되돌려 인류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한반도의 민족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시달리는 인류를 화목케 하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미움, 대립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중동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평화의 새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Oh, Spirit of reconciliation,**

The Spirit of 1907 worked to reconcile ourselves with God and to reconcile ourselves with each other. Today, the nation is divided, the society is polarized, and spiritual division is occurring as men depart from God. Come and restore the values of this generation so that mankind reconciles with God, and bring peace to all the regions of conflict in this world, especially on the Korean peninsula. We pray Holy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e with the people of Israel and Lebanon in the Middle East where the people are divided due to mutual hatred and , conflict and make them one in peace. .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 인도자 5 : 미키오 이마이주미 목사 (일본기독교단)

Leader v : Rev. Mikiyo Imaizumi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오, 영혼의 조연자 성령이시여,

1907년에 성령은 우리 영혼이 사심 없이 역사적 위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 바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고 민족의 위기에

신앙으로 응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증언은 깊은 영혼이 근본이 되지 않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화하지 않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도 영혼을 올리는 감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추진력의 영적 근본이 되옵소서.

**Oh, Holy Spirit, the counselor of the soul,**

In 1907, the Holy Spirit provided us the spiritual foundations upon which we could face the times of historical crisis. And so, we were able to overcome trials of the past and response to the moments of national crisis by faith alone. However, the testimonies of the contemporary church are focusing more on technical programs which are not based on the deep soul. Without the Holy Spirit, no program will truly arouse other souls. Come and lay the spiritual foundation of all the programs of the Church.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인도자 6 : 탄 유 초안 목사 (대만장로교회 총회장)**

**Leader vi : Rev. TAN U-Choan (Moderator of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오, 생명의 완성자 성령이시여,

1907 년에 성령은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임하셔서 인간으로 생령이 되게 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생명 없는 세상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 없이 희생당하는 필리핀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성령이시여, 이 역사 속에 생명의 기운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인간과 온 창조세계가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Oh, Holy Spirit, the perfecter of life,**

In 1907 the Holy Spirit gave hopes of revival to this hopeless world. Oh Holy Spirit, who came down upon the God-created mankind and transformed them into living spirits, this day God's creations are being put to death and this world is becoming barren. We also remember the deaths of innocent Christians and also pastors in the Philippines. Spirit of Life, come and give new life to this world that is rapidly advancing towards its ruins. Let all mankind and the world enjoy the life granted by God.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 Amen. Come to us, Lord Jesus.*

**인도자 7 : 김인식 목사 (미국장로교회)**

**Leader vii : Rev. Dr. KIM In Sik (Presbyterian Church in USA)**

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1907 년의 부흥은 성령이 우리 영혼과 일치하고 우리 영혼이 성령과 일치함으로 교회의 일치, 성직자와 평신도의 일치, 신앙공동체의 일치, 심지어 신앙과 행위의 일치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유리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모든 구성원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상은 하나님과 세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세상의 일치도 이루어 주소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인종으로 문화로 이념으로 경제력으로 사회적 차별로 서로 서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이 세계의 모든 거주민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오이쿠메네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Oh, Spirit of unity,**

The 1907 revival have caused the Holy Spirit to agree with our souls and our souls to agree with the Spirit, the minister to agree with the believers, the community of faith to work in concert, and have even caused faith and deed to work in accordance. However, today, our souls are wandering away from God and the members of the church are divided. The division within the Korean Church has become a disgrace in the eyes of God and the world. We cannot do anything, o Holy Spirit, so come and let us become united in the name of the Lord. Also, let the world become one. Let all God’s children of this world who have failed to recognize each other due to racial, cultural, ideological, economic and social discrimination enter the family of God. Let true Oikumene take root in this land.

**다같이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ll Together: Amen. Come to us, Lord Jesus.**

### **부흥의 빛 *Light of Revival***

- “부흥” 반주곡이 은은하게 장내에 울린다..

Music “Revival” played by Myung Sung Orchestra

- 회개와 부흥 평화의 기원을 새긴 큰 배너를 어린이 4명이 들고 입장하며, 뒤를 이어 부흥을 상징하는 촛불을 들로 성인 2명이 입장한다.

Procession of four children holding a big banner written prayers of repentance, peace, revival followed by two people holding candles, symbol of “revival”

**닫는 찬양 *Closing Hymn* “부흥(Revival)”**

**다같이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

**김형태 목사 Rev. KIM Hyung Tae (Emeritus Moderator)**

### **인사 *Greetings***

- 축사 : 박경조 주교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

Greeting Message by Arch-bishop PARK Kyung Jo (President of NCKK)

- Welcoming all the Ecumenical Representatives, mission co-workers and representatives of ecumenical organizations.

에큐메니칼 대표들/ 총회 소속 선교동역자

국내 연합기관 기관장 인사 및 환영